

인터뷰

강희구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장)

조합원 권익이  
우선  
보장되도록  
최선 다할터...

□ 정리/김용화 부장

△제6대 조합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취임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강희구 : 흔히 60살이 넘어 정년을 맞이하면 쓸모 없는 인간이 되었구나 생각하게 마련인데 저의 경우는 70살이 넘었음에도 아직 양계조합원을 위해 쓸모가 있어 이번에 다시 유임을 시켜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양계조합이 그 많





은 어려움을 잘 넘겨 이제는 조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업을 많이 벌려놓다 보니까 아무리도 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책임을 맡긴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를 걸고 하나하나 뒷마무리가 잘 되도록 조합의 임원진과 더불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허실되는 일이 없게끔 남은 여력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계업은 최악의 불황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조기에 수습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희구 : 생산이 과잉이 되었건, 소비가 위축이 되었건 일단은 생업에 종사하는 양계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자율경제체제에서 어느 누가 걱정한 사육수수를 유지하기 위해 줄여라, 늘려라라고 강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정보전달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양계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입추가 돼야 가능성이 있는가 판단해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끔 수매비축자금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보관상의 문제, 수매량의 한계 때문에 전 양계인들을 만족스럽게 할 수 없어 안타깝기도 하고 질책도 받지만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좀 먼저 양계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손실의 폭을 빨리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 “서울·경기 양계협동조합은 타지역의 양계조합과 동일한 위치에서 조합운동을...”

△서울·경기양계협동조합은 타 분야 보다도, 또한 타 지역 보다 업종조합으로 일찍 출범하여 금일에 이르고 있는데 다소는 지역간과의 이견이 대두되는 등 마찰이 있기도 하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문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을 운영하면서 어떤 면이 어려운지 말씀해 주시지요?

강희구 : 진정한 조합원이라면 조합이 조합원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주는가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조합의 기능을 이해한다면 가끔 발생하는 불만의 소리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조합을 정부의 한 부서쯤으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양계조합은 현재 5개지역에 있는데 서로가 같은 목적하에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다소는 이해가 대립되는 것 처럼 비취질 때도 있을지 몰라도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거의 매일매일 출하량이나 가격 등을 협의에 의해 조정해가고 있어 등을 돌릴만큼 큰 사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잘못 인식하여 마치 서울·경기양계조합이 다른지역의 양계조합을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역의 양계조합과 동일한 위치에서 조합원을 위해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령 이견이 있어도 조합의 임원들이 양계협회 회원이거나, 임원직을 맡고 있어 항상 그랬듯이 의견조정에는



큰 불편이 없었고 이로 인해 활동하는데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간에 불일치하는 유통량을 조절하여 양계업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중부집하장과 난가공공장을 조합이 직접 운영해 나갈 방침으로 추진하여 집하장은 이미 완공이 되었으나 난가공공장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공식 발표가 없어 궁금합니다?

강희구 : 설명하신대로 중부 집하장은 5개 조합이 출자하여 완공을 보았습니다. 그간 직판능력이 모자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조합들이 세웠으니까 운영도 조합이 직접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직원을 고용해 기본급은 보장을 해주고 판매하는 양만큼 성과급을 주는 방식으로 나간다면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부 지역에서는 적임자와 합의 단계에 있고, 몇군데는 더 절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물량을 취급하는데 있어 일정한 가격은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

에 활성화가 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염란과 파란을 골라낸 깨끗한 계란은 어느 시장에서나 판매가 가능하게 만들고, 일부는 난좌를 특수하게 색을 넣어 제작해서 조합이 품질을 보증하는 위생란으로 만들어 영양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신선한 계란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게끔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선한 계란을 소비자들이 선호하게끔 준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

난가공공장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매비축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파란이나 등외란 처리를 위해서도 조합이 경영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가공공장을 인수키로 하였는데 부도가 나서 다시 정

부와 인수방법을 놓고 절충을 해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바라는대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계인들이 조합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희구 : 백번을 강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주안점을 두고 운영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조합원의 권익을 임의로 불리하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협회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소비홍보나, 비합리적인 양계산물 유통으로 양계산물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례를 사전에 막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계업을 위해 내가 먼저 참여와 협조를 하고 산적인 문제들은 이루말할 수 없이 많음으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